

비운의 정치개혁가 조광조



전근대 사회에서의 개혁은 주도권의 측면에서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즉 군주 혹은 황제가 추진하는 개혁과 소수의 정치가가 추진하는 개혁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개혁적인 인물들은 많았다. 그중에 조선 전기, 16세기 초에 왕도정치를 바탕으로 개혁을 이끌었던 조광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어떤 인물이고 어떠한 활동을 펼쳤으며, 이에 관하여 한국사 교과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

우선 『조선왕조실록』에서 그의 활동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남궁원

서울고등학교
수석교사

자료 1. 조광조가 중용을 강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사유(師儒)와 유생 등에게 강(講)을 시키니, 성균관 사성 김안국(金安國)이 『논어(論語)』를 강하여 ‘통(通)하고, 사예(司藝) 김윤온(金允溫)이 『시경(詩經)』을 강하여 ‘통’하고, 진사 조광조(趙光祖)는 『중용(中庸)』을 강하여 ‘약(略)하였다. 강이 파한 뒤에 안국과 윤온에게는 ‘각각 마장(馬裝) 한 벌씩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국가가 무오사화(戊午史禍)를 겪은 뒤부터 사람이 다 죽어 없어지고 경학(經學)이 씻은 듯이 없어지더니, 반정 뒤에 학자들이 차츰 일어나게 되었다. 조광조(趙光祖)는 소시에 김광필(金宏弼)에게 수학하여 성리(性理)를 깊이 연구하고 사문(斯文)을 떨쳐 일으키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으니, 학자들이 추대하여 사람의 영수가 되었다.¹⁾

1)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1월 15일 정묘 1번째기사(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자료 2. 조광조 등을 천거하다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사경(司經) 황여헌(黃汝獻)이 아뢰기를,
 “위에서 명하여 쓸 만한 유생을 천거하게 하시었는데, 성균관(成均館)이 생원(生員) 조광조(趙光祖)·김석홍(金錫弘)·황택(黃澤) 등을 천거하였습니다. 이 몇 사람은 모두 학문과 조행(操行)이 없으니, 성상의 성심으로 구하시는 뜻에 부합하지 못할까 합니다. 조광조는 바야흐로 학문에 뜻을 두니 쓸 만하기는 합니다마는, 학문을 폐지하고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그 역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천거라는 것은 재주와 조행이 특이한 자를 뽑을 것이요, 범류(凡類)로 그 선에 충당함은 불가합니다.”²⁾

자료 3. 조광조를 논하다

주강에 나아갔다. 검토관 공서린(孔瑞麟)이 아뢰기를,
 “성균관이 천거한 유생 조광조(趙光祖)는 그 마음과 행실이 다른 사람보다 특이한 점이 있어서 특별히 천거(薦舉)를 받았으니, 이는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³⁾

자료 4. 전시에서 조광조를 뽑다

문과 전시(文科殿試)에서 유학(幼學) 장옥(張玉)·사지(司紙) 조광조(趙光祖) 등 15인을 뽑았다.⁴⁾

자료 5. 조광조가 아뢰다

정언(正言) 조광조(趙光祖)가 아뢰기를,
 “언로(言路)가 통하고 막히는 것은 국가에 가장 관계되어, 통하면 다스려지고 평안하며 막히면 어지러워지고 망하므로, 임금의 언로를 넓히기에 힘써서 위로 공경(公卿)·백집사(百執事)로부터 아래로 여항(閭巷)·시정(市井)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말할 수 있게 하나, 언책(言責)이 없으면 스스로 말은 극진하게 할 수 없으므로 간관(諫官)을 두어 그 일을 맡게 하는 것이니, 그 말이 혹 지나치더라도 다 마음을 비워 놓고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은 언로가 혹 막힐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하략)⁵⁾

위의 자료를 보면 조광조의 사람됨을 짐작할 수 있다. 조광조가 성균관 재학 시절 힘써 공부하였다는 내용(자료1)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후 국왕의 명을 받은 성균관의 추천을 받은 내용(자료 2) 등이 있다. 조선 시대 과거 시험인 문과에는 소과와 대과가 있

2)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3일 임오 3번째기사(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3)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18일 정유 2번째기사(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4)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22일 병자 5번째기사(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5)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22일 갑진 1번째기사(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고, 소과는 생원과와 진사과를 나뉜다. 생원과에 합격하면 생원이 되고, 진사과에 합격하면 진사가 된다. 이들이 초급 관직에 나아갈 수도 있지만,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성균관에 들어가 높은 공부를 할 수도 있다. 소과 시험은 일종의 성균관 입학시험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자료 2와 자료 3을 보면 조광조가 성균관 유생으로서 매우 열심히 유학을 공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선의 국립대학이라 할 수 있는 성균관의 교육과정은 크게 경사(經史)의 강의와 제술(製述)이 주를 이루었다. 당대의 학문적 경향이 성리학이었고, 성리학의 주된 경전이 4서(四書)이니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 주 텍스트가 되겠다. 게다가 이 경전은 적어도 조선 전기의 시기에 벌써 1500년 전에 편찬되었기에 당대의 시각에서 주해하는 것이 난감했을 것이며, 많은 이론을 낳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마침 중국 남송 시대 주희(주자)가 4서를 당대에 맞게 해석하였으니 이름하여 『사서집주』이며, 이것이 성리학의 학문으로 삼기는 유학자들이 읽고 암송해야 하는 일종의 바이블인 셈이다.

자료 3에 “유생 조광조(趙光祖)는 그 마음과 행실이 다른 사람보다 특이한 점이 있어서 특별히 천거(薦擧)”라는 구절은 매우 특이한 부분이다. 마음과 행실이 다르다는 것은 ‘특출나다’라는 것으로 타의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미 빼어난 인물이며, 말과 행동이 바르고 정직하며, 곧은 사람으로 힘써 성리 철학은 공부하는 인물로 평가받았음을 알 수 있다.⁶⁾

사서의 핵심 경전이 『논어』 「안연」편에 이런 글이 있다.

齊景公問政於孔子。孔子對曰“君君，臣臣，父父，子子。”

제경공문정어공자. 공자대왈 “군군, 신신, 부부, 자자.”

公曰 “善哉! 信如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 雖有粟, 吾得而食諸?”

공왈 “선재! 신여군불군, 신불신, 부불부, 자부자, 수유속, 오득이식저?”

제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하여 물었다. 공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비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

6) 남송의 주희가 집대성한 성리학은 우리나라에 고려 말에 안향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이제현과 정몽주, 이색 등을 거치며 정착되었다. 고려 말 신진 사대부의 중심 철학이나 유학 사상이 성리학이었으며, 이는 불교 비판의 근거이자 조선 왕조 개창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다.”⁷⁾

제경공이 말하였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만일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아들이 아들답지 못하면, 곡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성균관 유생인 조광조가 이 대목을 모르지 않았을 터이고, 젊은 혈기에 조선 건국 이후 정치의 흐름에 대하여 몰랐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조광조의 성균관 유생 시절 국왕 중종은 반정을 통하여 국왕으로 등극한⁸⁾ 인물이니 조광조도 시대의 흐름을 읽으며 자중하며 학문에 몰입하였을 것이다.

임금이 임금답다는 것, 즉 임금 노릇을 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본분에 충실하는 것일 터이다. 학생의 본분이 학문하기라 한다면, 임금이 임금답다는 것은 천명(天命)을 받들어 어진 정치를 펼치고 온 백성을 보살피는 일이 아닐까? 중종 초기에 성균관 유생으로 학문을 연마하던 조광조는 폐군 연산군과 새로운 국왕인 중종을 비교하면서 성리학적 관점에서 예의주시하며 생각하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조광조의 삶을 더듬어보고자 한다.

조광조의 본관은 한양, 호는 정암이며, 조선 개국공신의 한 사람인 조온의 5대손이라 한다. 아버지는 조원강이고, 어머니는 여흥 민씨이며, 1482년에 태어났다. 태종의 부인이자 세종의 모친도 역시 여흥 민씨이니 당대의 세력 있는 집안 출신임을 알 수 있다. 15세기 말 아버지가 평안도 희천군 찰방⁹⁾으로 부임하여 그가 따라갔으며, 마침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나 희천으로 유배를 왔던 김굉필의 밑에서 학문을 배웠다고 한다. 이는 이후 조광조의 학문은 물론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연산군 집권 시기에 두 차례 사화(士禍)가 일어났다. 1498년 무오사화, 1504년 갑자사화이며, 두 차례에 걸친 사화로 매우 많은 선비가 목숨을 잃었으며, 특히 사림파 선비들이 크게 화를 입어 죽임을 당하였다. 이는 조광조의 학문과 정치 철학에 더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즉 임금다운 임금, 임금의 노릇을 제대로 하는

7) ‘군군신신부부자자’를 혹자는 임금이 임금 노릇을 하고, 신하가 신하 노릇을 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아들이 아들 노릇을 하더라도 풀이하기도 한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 필자는 위와 같이 풀이하고자 한다.

8) 1506년 성희안과 박원종 등이 이른바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폐하고 새로운 국왕인 중종을 옹립하였는데 이를 중종반정이라 한다.

9) 조선 시대 각 역참(驛站)과 원(院) 등에 근무하며 해당 역로(驛路)와 역마(驛馬) 등을 관리하는 종6품 관원

임금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나 중종이 집권하면서 세상이 달라졌다.

중종 5년에 진사시에 급제하여 성균관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철저히 성리학적 가르침에 따른 생활과 언행을 중시하였다. 이런 그의 행동을 동료들은 ‘그 마음과 행실이 다른 사람보다 특이’하다고 하였으니, 그의 행동을 능히 짐작할 수 있겠다. 중종은 성균관에 명하여 경전을 강하도록 하였는데, 조광조가 중용을 강한 바 있으며, 훌륭한 유생을 천거하도록 하였을 때 성균관은 조광조를 추천하기도 하였다. 그의 학문적 높이와 깊이 및 인품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조광조는 1515년 중종 10년에 마침내 대과에 급제하여 본격적으로 정치 전면에 나섰다. 이 해 그의 나이가 서른셋이었다. 마침 이때 커다란 분란이 일어났다. 박상과 김정이라는 인물이 중종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단경왕후 신씨¹⁰⁾를 복위하자는 상소를 올리는 일이 벌어졌고, 이를 둘러싸고 조정이 나뉘었다. 박상과 김정을 탄핵하자는 입장과 변호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탄핵을 주도하는 사헌부의 관료와 그 동조 세력은 ‘종묘와 사직이 언로(言路)보다 중요하다’라며 탄핵을 주장하였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상소는 신하된 자의 ‘신하 노릇’이기에 탄핵을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조광조는 당연히 탄핵 반대의 입장이었다. 여기에는 이전부터 대립해 왔던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의 갈등이 깔려 있다. 이른바 도학 정치, 왕도정치를 추구하는 사림 세력과 두 번에 걸친 정변에서 공을 세워 중앙의 고위직을 차지한 훈구 세력의 대립이 흐르고 있었다. 국왕을 중심으로 두 세력은 이미 두 차례의 사화로 불거졌으며, 사림 세력이 더 큰 피해를 본 바 있었다.

당시 조광조의 직분은 사간원 정언으로서 상소를 올려(자료 5) 삼사의 직분은 언론이기에 국왕에게 상소를 올릴 수 있으며, 고관이나 국왕의 정치에 대하여 간언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박상과 김정을 탄핵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언관으로서 상소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직분이며, 이는 국왕이 수용 여부를 판단하면 그만일 뿐이지, 구태여 이들을 처벌하자는 주장은 언로를 막는 매우 좋지 않은 것이라 하였다. 그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상소를 올린 박상과 김정을 탄핵하자는 주장을 펼친 사헌부와 사

10) 중종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기 전에 첫 번째 부인이 신씨 부인이었는데, 그녀의 고모가 연산군의 부인이었다. 연산군이 폐위되면서 중종의 부인인 신씨도 폐위되었다.

간원의 대간을 파직하라고까지 주장하였다.¹¹⁾

중종은 결국 대신들을 불러 의견을 듣고 마침내 대간 교체를 단행하였으며, 1516년에 조광조를 홍문관 부수찬을 거쳐 홍문관 수찬으로 임명하였다. 이어 박상과 김정을 복직시킴으로써 조광조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홍문관은 경연에 참여하여 국왕과 학문과 정치를 논하는 관청인 탓에 조광조의 정치적 활동이 높아졌다.

1518년 홍문관 부제학에 이른 조광조는 소격서를 혁파하였으며, 현량과 실시를 건의하여 현량과 실시의 윤휴를 얻어냈다.

조광조가 아뢰기를,

“시종(侍從)은 신중히 뽑아야 합니다. 삼시 경연(三時經筵)에 임금과 도의(道義)를 강론하게 되니, 부득이 학문이 풍부하고 덕기(德器)가 이루어진 자로 할 것이요, 문장이 불만하거나 문벌이 높은 자로만 할 수 없으며, 또 너무 미천한 초야의 인사도 할 수 없습니다. 출신한 자는 벌써 모두 고위(高位)에 있고, 아래는 그를 계승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신의 생각에는 지금 이 사람을 뽑아 써야 될 때라고 봅니다.”

상(국왕, 중종)이 이르기를,

“천거한 사람을 과거 출신(科擧出身)의 예로 임용한다면, 전조(銓曹)는 반드시 인재가 없다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조광조가 아뢰기를,

“이자(李紆)가 아뢴 말은 신 등이 늘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외방의 경우는 감사(監司)·수령(守令), 경중(京中)의 경우는 홍문관(弘文館)·육경(六卿)·대간(臺諫)이 모두 재행(才行)이 있어 임용할 만한 사람을 천거하여, 대정(大庭)에 모아 놓고 친히 대책(對策)하게 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조종이 하지 않았던 일이요, 한(漢)나라의 현량과(賢良科)·방정과(方正科)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덕행(德行)은 여러 사람이 천거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헛되거나 그릇되는 것이 없을 것이요, 또 대책에서 그가 하려고 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요, 두 가지가 모두 손실이 없을 것입니다.”¹²⁾

11) 조선 시대의 삼사관 사헌부, 사간원, 그리고 홍문관을 이르며, 이들은 간쟁과 간언을 통하여 국왕을 바른 길로 인도함은 물론 고관들의 정치 비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상소를 올렸던 직책이다. 나아가 이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대신으로 승진할 수 있었기에 이들을 청요직이라 불렀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봉당 정치가 가열되며 본래의 직분을 잃고 자신의 봉당만을 편드는 폐단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12) 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11일 경술 1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반대가 극심하였지만, 조광조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중종은 1519년 현량과를 실시하였다. 중앙의 한성부와 삼사 등의 주요 부서는 물론 지방의 관찰사(유향소에서 수령에게, 수령이 관찰사에 추천함)가 후보자를 천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추천된 120명을 근정전에서 시험하여 최종 28명을 선발하였다.

폐위된 연산군을 이어 반정으로 즉위한 중종은 언로(言路)를 열고 조광조를 중용하여 깨끗하면서도 신권을 존중하는 정치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중종은 세조 이후에 시행된 6조 직계제를 바꾸어 세종 때에 시행되었던 의정부 서사제를 다시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는 분명 연산군과의 차별을 통한 유신 정치를 도입하려는 중종의 의도였다고 풀이된다. 신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하의 의견을 들어 이른바 바람직한 정치를 행하려 하였다. 여기에 신진 사류인 조광조라는 인물이 잘 들어맞은 셈이었다.

하지만 당대 조광조의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 남곤, 심정, 홍경주 등은 늘 조광조 등의 신진 사류(이른바 사림 세력)에 불만이었다. 조광조와 현량과를 실시하고자 한 것도 사실은 지방에 있는 사림 세력을 중앙으로 끌어올리려는 조치로 바라보았다. 게다가 조광조 등이 추진하였던 일부 공신의 공훈을 삭제(위훈 삭제)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곤 등은 중종이 조광조 등의 개혁이 지나치게 과격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파악하고 중종에게 접근하여 조광조 일파를 처단하기로 모의(?)하였다.

영의정 정광필·남양군 홍경주·공조 판서 김전·예조 판서 남곤·우찬성 이장곤·호조 판서 고형산·화천군 심정·한성부 좌윤 손주 등이 아뢰기를,

“조광조 등을 보건대, 서로 봉당(朋黨)을 맺고서 저희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저희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여, 성세(聲勢)로 서로 의지하여 권요(權要)의 자리를 차지하고, 위를 속이고 사정(私情)을 행사하되 꺼리지 않고, 후진을 유인하여 궤격(언행)이 정상을 벗어나고 격렬함)이 버릇이 되게 하여, 젊은 사람이 어른을 능멸하고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방해하여 국세(國勢)가 전도되고 조정이 날로 글러가게 하므로,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속으로 분개하고 한탄하는 마음을 품었으나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며, 측목(側目)(두려워서 바로 보지 못하고 겹눈으로 보는 것) 하고 다니며 중족(重足)(두려워서 활보하지 못하고 발을 포개 모아 서 있거나 발을 좁게 띠어 걸음)하고 섭니다. 사세가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한심하다 하겠습니까. 유사(有司)에 붙여 그 죄를 분명히 바루소서.”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죄인에게 벌이 없을 수 없고 조정에서도 청하였으니, 빨리 정죄(定罪)하도록 하라.”

정광필이 아뢰기를,
“한 사람이 중의(衆意)를 모아서 죄안(罪案)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남곤이 좋겠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누구를 우두머리로 합니까?”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조광조를 우두머리로 하라.”¹³⁾

결국, 조광조 등의 신진 개혁 세력은 1519년 이른바 기묘사화의 해를 입었다. 이 해가 조광조의 나이 서른일곱이었다. 조광조는 성리학적 사상을 기반으로 도학 정치(왕도정치)를 꿈꾸었던 개혁가였다. 연산군의 폭정과는 다른 선한 정치를 행하도록 중종을 이끌려 하였으나 지나친 과단성은 반대파를 더욱 굳게 하였으며, 중종의 눈 밖으로 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조광조는 능주(전남 화순)에 유배된 뒤 사약을 받아 죽었다.

중종 27년 5월 12일 기사에 ‘기묘당여’라는 기록이 등장하고, 이를 설명하는 글에 다음과 같은 주석이 달려있다.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연루된 사람을 지칭함. 기묘년 즉 중종 14년(1519)에 훈구파의 홍경주·남곤·심정 등이 경빈 박씨 등 후궁을 움직여 왕에게 신진 사류를 무함(誣陷)하게 하고 대궐 뜰 나뭇잎에 과일즙으로 ‘走肖爲王’이란 글자를 써 벌레가 갉아먹게 한 다음 궁녀를 시켜 그 잎을 따다가 왕에게 바쳐 의심을 조장시키는 한편, 밤에 신무문을 통해 들어가서 비밀리에 왕을 만나 위협에 가까운 논조로 조광조의 일파가 당을 조직하여 조정을 문란케 한다고 무고해서 조광조와 그 추종 세력을 제거한 일을 말함.

13)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5일 을사 6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 되었다. 국왕을 보필하는 신하로서의 삶은 어디까지 그의 활동을 인정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로 확장, 소격서 폐지, 위훈 삭제, 현량과 실시 등은 그의 대표적인 개혁 정치이며, 당대 중종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은 개혁안이었다. 이는 연산군을 뒤이어 즉위한 중종에게 전왕과는 다른 유신 정치를 펼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정치 개혁안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조광조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개혁안이기도 하였다. 이런 조광조의 개혁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까 살펴본다.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즉위하자, 이 과정에서 공을 세운 훈구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에 중종은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을 등용하여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조광조는 유교적 도덕 정치의 시행을 주장하며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현량과를 실시하여 사림을 등용하였고, 중종반정의 공신을 조사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의 공훈을 삭제하였다. 공신들은 이에 반발하였으며 중종도 조광조의 급격한 개혁에 부담을 느꼈다. 결국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은 다시 사화를 맞았다.

고등학교 한국사 < 동아출판, 52p >

사림은 연산군 시기에 두 차례의 사화를 겪으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중종반정 이후 등용된 조광조가 개혁 정치를 시행하면서 대거 중앙 정계로 진출하였다. 조광조는 천거제인 현량과를 통해 사림을 등용하고 향약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소격서를 철폐하고, 반정 과정에서 공을 세운 공신들의 등급을 조정하거나 삭제하였다(위훈 삭제). 그러나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은 훈구 세력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고등학교 한국사 < 해냄에듀, 60p >

㉠ (1482~1519)

- 1498년: 무오사화로 유배 온 김광필의 제자가 됨.
- 1510년: 진사시 장원 합격함.
- 1518년: 사헌부의 장관인 대사헌에 임명됨.
- 1519년: 기묘사화로 유배되었다가 사사됨.



전하, 개혁을 위해서는
㉠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해야
하옵니다. 향촌에 성리학적 질서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향약을
실시하게 하소서.

고등학교 한국사 < 해냄에듀, 61p >

중종은 자신을 왕위에 올린 훈구파가 권력을 독점하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다시 사림을 등용하였다. 조광조는 중종이 등용한 사림 중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은 왕도 정치 실현과 사림 중심의 향촌 질서 확립을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현량과를 시행하고 향약 보급을 추진하였다. 또한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중종반정의 공신 중 부적격자의 위훈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에 위협을 느낀 훈구파는 조광조 일파를 공격하여 대거 숙청하였다(기묘사화).

고등학교 한국사 < 금성, 63p >

역사 속 인물

▶ 기묘사화의 주인공, 조광조

내 이름은 조광조 왕의 신임을 받아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나의 급진적인 모습에 지친 전하께서 결국 나를 버리셨네, 나의 정책 이야기 한번 들어볼 댜가?



- **현량과 시행** 덕이 있는 인재를 추천하여 간단한 시험으로 등용하는 현량과를 시행하였다.
- **향약 보급** 향촌의 자치적 약속인 향약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고자 노력하였다.
- **위훈 삭제** 중종반정 공신 중 공훈도 없으면서 혜택만 누리는 이들의 거짓 공훈을 삭제하였다.

고등학교 한국사 < 금성, 63p >

#2. 조광조

중종 12년(1517) 11월 20일

대간이 정치를 문란하게 만든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재상이 공론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대간이 공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간도 공론을 말하지 않는다면 초야의 의견을 물어서라도 정사를 바로잡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고등학교 한국사 < 금성, 65p >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을 내쫓은 훈구 공신들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자 중종은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을 등용하였다. 조광조는 현량과를 실시하여 사림 세력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공신이 된 일부 훈구의 공훈을 삭제하려 하였다. 국왕과 훈구가 이에 반발하면서 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사림이 제거되었다(기묘사화).

고등학교 한국사 < 비상교육, 62p >

현량과의 실시

경연에서 조광조가 중종에게 아뢰기를, “재행(才行)이 있어 임용할 만한 사람을 천거하여, 대궐의 뜰에 모아 놓고 친히 대책(對策)하게 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 한나라 현량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덕행은 여러 사람이 천거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헛되거나 그릇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중종실록』 1518. 3. 11.

조광조의 건의로 실시된 현량과는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였다.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천거하여 왕이 친석한 가운데 구술시험을 치러 관리로 등용하였다. 현량과는 사림이 관직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고등학교 한국사 < 비상교육, 62p >

이후 연산군의 폭정으로 반정이 일어났고, 새로 왕이 된 중종은 정치 기강을 쇄신하고자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을 대거 등용하였다. 사림은 경연 강화, 언론 활성화, 소격서 폐지, 향약 시행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훈구 세력의 반발로 조광조 등이 제거되었고 개혁은 좌절되었다.

고등학교 한국사 < 지학사, 63p >

성종 때부터 사림이라는 정치 세력이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하였다. 이들은 주로 3세에 중용되어 세조 때부터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훈구 세력의 부정과 비리를 비판하였다. 이에 사림과 훈구의 대립이 심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차례의 *사화로 사림 세력은 큰 타격을 입었다.

*사화: 사림이 반대 세력으로부터 입을 화를 말한다. 연산군 때 일어난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중종 때 조광조 등의 개혁에 반발하여 일어난 기묘사화, 명종 초에 있었던 을사사화 등이 있다.

고등학교 한국사 < 천재교육, 65p >


사림이 공론을 내세워 훈구의 비리와 부정을 강하게 비판하자, 훈구와 사림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사림을 후원하던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하자, 사림의 언론 활동은 국왕과 훈구 대신의 공격을 받았다. 그 결과 사화가 일어나 많은 피해를 입었다. *중종 때에는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이 성리학적 가치를 강조하며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다가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조광조의 개혁 정치: 조광조는 현량과 실시, 향약 보급 등을 주장하고, 과대 평가된 훈구 대신들의 공훈을 삭제하려고 하였으나 기묘사화로 처형되었다.

고등학교 한국사 < 미래엔, 60p >

성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연산군은 신권을 제한하고 왕권을 폭압적으로 행사하였는데, 특히 사림의 언론 활동을 억제하였다. 이에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발생하여 사림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 연산군이 폭압 정치로 쫓겨나고 중종이 즉위하였다(중종반정). 중종은 공신들로부터 벗어나고자 조광조를 비롯한 젊은 사림을 등용하였다. 사림은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해 세력을 확대하였고 향약을 시행하여 향촌의 지배력도 넓혀 나갔다. 또한 3사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으로 내세워 경연 강화, 위훈 삭제 등을 추진하였다. 공신 세력들은 이에 반발하며 조광조 일파를 제거하여 사림은 큰 타격을 받았다(기묘사화).

고등학교 한국사 < 리베르스쿨, 58p >

정암 조광조는 연산군과 중종 대를 살아가면서 성리학을 공부한 유생이었으며, 성리 철학을 바탕으로 도학 정치를 꿈꾸었던 정치가였다. 국왕 중심의 정치이지만, 언론을 중시하고 공론을 중시하여 많은 깨달음을 얻은 사림 세력이 중심이 되어 중암 정치를 주도하고자 하였다. 그의 개혁 정치의 지향점은 무엇이었을까?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학습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역사적 인물을 통하여 오늘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교훈을 찾고자 함이다. 그의 주장 중에 언론 확장과 공론 정치는 확실히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참고 문헌

- 조성일(2022). 개혁하는 사람 조광조. 시간여행.
- 신병주(2021). 조광조 평전, 한겨레출판.
- 이종호(1999). 정암 조광조, 일지사.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
- 교과서(조광조 관련 서술 내용)
 - 최준채 외(202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3p, 65p, 금성출판
 - 노대환 외(202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52p, 동아출판

- 한철호 외(202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0p, 미래엔
- 송호정 외(202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3p, 지학사
- 최병택 외(202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5p, 천재교육
- 이익주 외(202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58p, 리베르스쿨
- 도면희 외(202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2p, 비상교육
- 박중현 외(202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0~61p, 해냄에듀

필자 소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서울 골목길 인문학과 융합 수업에 관심이 많으며, 학생들의 생각을 길러주기 위한 수업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였다.